

# 산업보건의 현재와 미래



## 최근

근골격계질환이 단체교섭과정에서 새로운 노사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근로자의 고령화와 서비스 부문의 확대로 직무스트레스 등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 또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대표되는 작업관련질환이 업무상 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 경향은 계속될 전망이다.

선진국의 경험으로 볼 때 산업재해의 형태는 전통적 산업재해로부터 직업병으로, 직업병에서 작업관련질환(work-related diseases)으로 이동하는 거시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향적 추세에서 예외는 아닌 듯 싶다.

21세기 산업재해를 대표하는 것은 작업관련질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얼마 전에 만난 ILO의 다카라(Jukka Takara) 산업안전국장도 EU국가에서는 이미 업무상 질병에서 근골격계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직장내 스트레스 역시 선진국 정부와 일류기업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영국 안전보건청(HSE)은 최근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계설비의 자동화, 기술발전 등으로 사고재해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직업병과 작업관련질환에 대한 비중이 점점 증가할 거라는 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간 우리나라의 산재예방행정은 보건보다는 안전에 그 자원과 역량을 보다 집중해 왔다. 그런데 사실 시장에서 불완전성이 큰 분야는 안전보다는 보건이다. 보건문제는 덜 가시적이고 덜 즉각적이며 덜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업병이나



송 봉 근 국장  
노동부 산업안전국

작업관련질환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에 비하여 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다.

또한 보전은 사고보다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뚜렷한 위험으로 인식될 가능성 또한 적다. 따라서 같은 정도의 위험이라면 안전보다는 보전에 보다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부주의도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역할이 산업재해 예방에 큰 몫을 담당하지만, 직업병의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유해한 화학물질 등이 그 근본원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근로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정부와 사업주의 역할이 보다 강조된다.

그런데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작업관련질환은 작업과 관련되는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전통적인 직업병과는 달리, 근로자의 생활습관과 결부되어 고혈압, 당뇨 등 기초질환을 계기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그런 만큼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근로자의 참여와 관여 없이는 이 질환에 대한 예방활동은 성공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와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은 보건문제로 그 무게중심이 점차 이동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산재예방활동의 성공 여부는 사업주에 의한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에 의한 자발적 건강관리, 즉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를 어떻게 잘 조직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들의 참여가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사업을 위해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업주 역시 산재예방사업의 설계, 실시,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근로자를 적극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산업화 및 기계화의 진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노동의 '양'은 감소될 가능성이 크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노동의 '질'과 '효율화'는 보다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문제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착취'에서 '보호'와 '협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선진기업에서는 근로자의 건강문제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라는 윤리적 차원을 넘어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근로자가 인적자원으로서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가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주장했듯이 개인의 건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직장 조성이야말로 생산성 향상의 첩경이라 할 수 있다.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 경제난 극복과 직장의 발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열심히 뛰는 근로자들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노력에 건강이 함께 한다면 더욱 생산적이고 보람찬 직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건강이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한민**